



◀ 괴산지부 월례회를 맞아 괴산지부 전병철 지부장과 괴산지부 회원일동이 함께 단체사진을 찍었다.

“양돈산업 발전은 지역사회 발전이다.”

충북 괴산지부

취재 - 오유환

지난 200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괴산군과 증평군이 별도분리가 됨에 따라 기존의 괴산지부가 증평지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괴산 지역에는 지부가 없어짐에 따라 괴산지역 양돈농가 23명이 괴산지부를 새로 설립하고 전병철 지부장을 중심으로 양돈인들이 단합하여 괴산지역 양돈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괴산지부의 임원은 현재 전병철 지부장을 중심으로 이상천 부지부장, 김정우 총무, 이계훈, 임태식, 권순홍, 장시섭, 이완철 이사, 전명식, 윤갑훈 감사 등 10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지부의 양돈관련 사업 등을 점검하고 괴산 양돈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현재 괴산지역에서 현재 65여 농가가 약 7만5천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40여 농가가 지부회원으로 6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매월 초 정기적으로 열리는 지부 월례회를 통해 괴산 양돈인들 대부분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교환을 나누고 있다.

괴산지역 양돈의 중심, 괴산지부

괴산지부는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하면서 필수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군이나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지원되는 각종 사업들도 지부를 통해서 홍보되고 신청됨에 따라 괴산지역 양돈업의 모든 것이 괴산지부로 모이게 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괴산지부는 충북도와 괴산군의 보조를 통해 종돈개량, 모돈갱신사업을 적극 전개해 괴산지역 양돈농가당 17두의 종돈 교체를 실시했다. 또한 냉온풍기 사업, 자돈 인큐베이터 사업, 생균제 사업 등도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특히 이유자돈 컨테이너 보급 사업을 실시, 지난해 30개의 이유자돈 컨테이너를 설치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20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병철 괴산지부장은 “모돈갱신은 양돈장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양돈농가가 모돈구입 비용 등에 따른 부담 등으로 모돈갱신을 지연하는 사례를 방지, 적극적으로 모돈갱신 사업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양돈농가들의 생산성향상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괴산지부는 동물약품 공동구매, 기자재 공동구매, 생균제 및 정액 공동구매 등을 통해 지부회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한편, 지부 운영에도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도태돈 공동판매를 통해 두당 5천원씩의 기금을 적립해 협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매월 주제별 양돈컨설팅 및 세미나 개최

아울러 월례회의 때마다 군청이나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질병·경영·환경 등 각 분야 양돈



▲ 괴산지부 전병철 지부장. “아직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축분뇨를 처리하기에는 모자란 점이 있지만 공공처리장을 바탕으로 더욱 자연순환농업에 매진한다면 괴산군 지역의 양돈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전량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컨설팅 및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괴산지부는 매월 월례회 때마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양돈과 관련된 다양한 테마로 진행된다. 지난 12월 4일에 개최된 월례회에서도 ‘소모성질병 근절을 위한 양돈생산성 향상 세미나’와 ‘2007년 양돈산업 전망’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관련기관과 유대적 관계 유지로 지역 양돈산업 발전에 공조

이와 더불어 괴산지부는 괴산군청 농정과 등 행정기관과 관련단체 및 관련업체와 유대적 관계를 유지하며, 가축분뇨의 효과적인 처리와 자원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괴산지역은 현재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한



◀ 괴산지부 임원들

(뒷줄 왼쪽부터) 권순홍 이사, 전명식 이사, 황윤경 간사, 이완철 이사, 김정우 총무 (앞줄 왼쪽부터) 전병철 지부장, 윤갑훈 이사, 임태식 이사(괴산농협 조합장), 이상천 부지부장, 이계훈 이사

자연순환농업으로 70%, 해양배출로 30% 가량의 가축분뇨를 소화하고 있는데 현재 200톤 규모의 액비 저장조를 20여개 농가에 설치 운영중이며, 괴산지역 경종농가와 연계해 친환경농업단지를 마련하고 농가별로 진행되고 있는 자연순환농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가축분뇨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생물 발효제 사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품질의 퇴·액비를 생산 제공함으로써 경종농가의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처리장 완공으로 해양배출 의존도 해결 기대

2007년에는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에 공공가축분뇨처리장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다. 일 70톤 규모의 분뇨처리 시설이 가동되면, 현재 괴산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량의 30% 가량을 처리할 수 있어 분뇨처리 문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12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고민하던 괴산지역 양돈인들의 가축분뇨 해양배출 물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해양배출 저감과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괴산지부의 맘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화기애애한 지부 참여, 경조사에도 앞장

또한 회원들의 화합과 화목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괴산관광농원에서 회원 부부동반으로 단합대회를 갖는 한편 무료시식회 등 돼지고기 소비촉진행사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협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괴산 고추축제를 맞아 각 지역 읍면마다 돼지 한 마리씩 마을축제에 제공하여 지역 사회에 동참하는 한편 지난 10월 괴산에서 열린 충북도민체전에서는 무료시식회 행사를 전개해 300kg의 삼겹살, 목살, 불고기 등의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한 지난 가을 화재를 당한 회원에게 5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위로를 하기도 했다. 연말에는 이웃사랑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 차원에서 100만원을 모금하여 관내 재활원 등 소외시설을

찾아 돼지고기와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화
기애애한 양돈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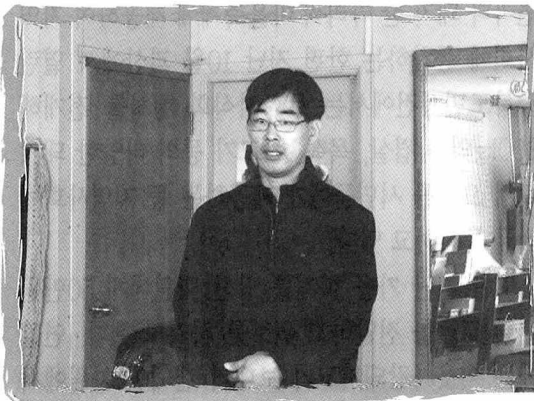
지부 통한 지원사업 일원화

월례회에서 만난 지부회원들은 한결같이 전병
철 지부장의 열정과 성의의 리더십에 괴산지역 양
돈인이 단합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전병철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노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병철 지부장은 “축산분야는 축산인 스스로
개척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축협, 농업기술센터, 군청 등 축산관련
기관 단체들이 상호 연계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이에 괴산군청 이재하 계장도 “급변하는 양돈
환경에서는 읍·면의 농가들에게 양돈지원사업과
제도를 일일이 홍보하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양돈협회의 가치는 높아진다고, 양돈인 스스로가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서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
다”고 강조한다.

특히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경종농가의



▲ 괴산군청 이재하 계장이 양돈관련 정책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 전병철 지부장은 “매월 세미나를 통해 기본에 충실한 과학적
인 사양기술과 질병정보를 파악하여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인 세미나 교육과
정을 개설해 양돈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이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양돈인들의 노력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군에
서도 월례회를 통해 군 행정지원 사업들이 홍보되
고 지원사업 창구로 일원화하여 지부 활성화를 적
극지원하고 있다.

양돈산업 지원 위한 축산과 신설 기대

괴산지역 양돈인들은 괴산지역 축산업의 발전
을 위해서는 양돈산업, 나아가 축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군 행정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지난해 12월 괴산군청에는 축산
물 유통을 지원할 유통계가 신설되었다.

현재 괴산군청 농정과 아래 축산진흥계, 방역
계, 유통계로 편성되어 있는 괴산군 축산행정조
직의 확대개편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축산진흥계 단독으로
괴산지역 축산업을 지원했지만 괴산지역 축산인
들의 염원과 괴산군의 축산발전에 대한 의지로 '05년에는 방역계가 '06년에는 유통계가 신설되
는 등 축산관련 행정조직이 점차로 축소되는 다
른 지자체의 여건을 비교해 볼 때 축산업 발전에



▲ 지난 12월 4일에 개최된 월례회에서도 '소모성질병 근절을 위한 양돈생산성 향상 세미나'와 '2007년 양돈산업 전망'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대한 괴산군의 의지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괴산지역 축산인들은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위해서는 축산인들의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축산과' 신설을 요청중이며, 임각수 괴산 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긍정적인 검토 약속을 받아 한층 기대가 크다.

우수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괴산지부는 괴산지역의 양돈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 브랜드 육성과 유통망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 브랜드 사업 추진을 통해 괴산지역 양돈산업의 기반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괴산지역 돈육 브랜드는 협회 주도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괴산을 실질적인 충북지역의 양돈메카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또한 괴산축협을 통한 축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돈육 유통망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제대로 된 유통망의 확보만이 우수한 돈육 브랜드의 파급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사업을 점진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중이다.

한·미 FTA 등 거센 수입 축산물의 개방 압력에서도 괴산지역 양돈산업 신장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괴산지부 회원들의 단합된 모습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하는 모습에서 우리 양돈산업의 돌파구가 보이는 듯 하다. **양돈**

전문가 무료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양돈장의 고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



- ▲ 경영 및 정책 ▲ 수급 및 돈가 전망 ▲ 사료 ▲ 질병 ▲ 사양 ▲ 시설 및 환기 ▲ 분뇨 ▲ 번식 및 육종, 인공수정
- ▲ 육가공 및 유통분야 ▲ 세무 등 34명의 분야별 전문가 전문상담

* 전문가 상담코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협회 홈페이지에서 '계시판'을 클릭한 후 좌측에 있는 '전문가 상담코너'를 클릭하세요. 양돈농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한양돈협회 www.koreapork.or.kr